

## 2020 년 10 월 11 일 “아브라함 이야기(6) 언약의 길을 비껴갔지만”(창 16:7-16)

본문에 등장한 아브람 가정은 갈등과 반목으로 비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에 합당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의 발단은 당시의 관습을 이용해서 아들을 얻고자 했던 사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서는 여종 하갈을 만나 주심으로써 언약의 가정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 [1] 광야에서 하갈을 만나주시다

하갈은 사래의 학대를 견디기가 힘들어 대책도 없이 도망간 광야에서 곤경에 빠진 그녀를 주님의 천사를 통해 만나 주십니다. 천사와의 대화를 요약하면,

(1) **8 절.**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나’ ‘여주인 사래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어디서 온 것은 답하였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며 살라’는 당부에 하갈은 답하지 않습니다.

(2) **10 절.**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 말에도 답하지 않습니다.

(3) **11-12 절.**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스마엘(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라고 해라. 네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아들은 들나귀 같은 자가 될 것입니다(**12 절**). 이 말씀은 그녀의 수준과 처한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생존과 안전이 절박하며, 집으로 돌아가면, 과오를 저지른 여종이 받을 학대와 징벌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아들을 낳으면 살 수 있고, 집안의 친족들에게 결코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천사의 말씀을 듣고 나니, 아브람 가정에서 옆에서만 들어왔던 하나님께 자기의 극심한 고초를 당하는 가운데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으셨음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3 절.**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살피시는 - 개역개정) 하나님을 뵈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이러한 비범한 영적 경험을 하고 ‘엘로이’를 불렀습니다.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 [2] 하나님을 만난 후

하갈은 용기를 얻고 사래에게 돌아갔습니다. 사래가 따뜻하게 맞아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자라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살피실 것이며, 아들이 장성하면 자신과 아들은 약속 안에서 지켜질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갈이 하나님 만난 경험을 전했을 때 아브람과 사래는 믿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15 절**,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는데 이 이름은 하갈에게서 들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 [3] 하갈과 사마리아 여인

본문 속 샘 곁에 주저앉아 있는 하갈은 요 4 장의 사마리아 여인과 흡사한 면이 많습니다.

- 유대인이 아닌 여성
- 상처받고 절망을 겪으며 살아갔음
- 종살이: 하갈은 육적 차원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 차원
- 먼저 주님이 찾아 주심
- 주님을 만나고 새 희망 속에서 본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음

세상이 누군가에게 '너는 선택받지 못했고, 소외되었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처음부터 끝까지 살피고 계심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은 당신 삶과 사역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말합니다. 세상에서 명망 있고 잘 사는 이들보다 낮고 비천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찾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구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얻은 삶의 영원한 축복의 자산이 됩니다. 진정한 변화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눅 16 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나사로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받는다'

주변에 신앙 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삶이 잘 정돈되어 보이지 않고 막사는 것 같은 사람을 보면 마음으로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자신의 거친 광야 생활 중에 주님을 만나고 언약의 수혜 속에서 영원한 위로와 축복을 소유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왕이면 비천하고 자격을 못 갖춘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더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축복을 얻는 위대한 길입니다.

### <생각해 봅시다>

1. 본문에 나타난 하갈의 경험 속에 자신을 대입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갈과 유사하게 느껴지는 내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하갈에게 찾아가시듯, 내 주변의 누구에게 찾아가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를 먼저 위로하고 섬겨줍시다.